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채은하*

1. 들어가는 말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장애라는 현실을 인간의 긴 역사에서 결코 피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호칭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편견이나 무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어 성경(BHS)과 다양한 번역 성경들, 이를테면 최초의 번역 성경인 칠십인역(LXX)¹⁾을 비롯해서 최근 (1998/1999/2001) 한국교회(구교 포함)가 개정 출판해서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 종류의 한글공인 성경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대한성서공회 번역/출판)과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우리말 완역 신구약 합본 『성경』 (2005)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번역 성경들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호칭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인식과 태도를 어느 정도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므로 장애인의 호칭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다.²⁾

이것을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장애인 호칭들을 찾아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칠십인역과 최근 개정 혹은 새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chai7365@hamail.net. 이 논문은 2016-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6S1A52A01022373)

1) 본 논문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은 BHS를, 칠십인역은 랄프스(A. Rahlfs)가 편집한 본문을 사용할 것이다: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2)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142.

로 번역된 4개의 한글 공인 성경들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애인 호칭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1990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대안적 호칭들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³⁾

2.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과 번역들

히브리어 성경(BHS)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호칭들은 대표적으로 עֵוֶר, חֲרָשׁ, אֵלֶם, בְּסֹחַ를 들 수 있다.⁴⁾ 이들 가운데 첫 번째 עֵוֶר는 시각 장애인, אֵלֶם과 חֲרָשׁ는 언어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용어 בְּסֹחַ는 지체 장애인에게 붙여진 용어들이다.⁵⁾ 이 장애인 호칭들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을 살펴보면, עֵוֶר는 칠십인역에서 대부분 τυφλός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חֲרָשׁ는 모두 κωφός(언어 혹은 청각 장애 혹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로 번역하고 있고, 주로 언어 장애인을 가리키는 אֵלֶם은 어느 특정 용어가 아니라 다양하게 δόσκωφος, μογιάλος, ἄλαλος 혹은 κωφός 내지는 ἐνεός로 번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체 장애인 בְּסֹחַ에 대하여 칠십인역은 모두 χωλός로 번역하고 있다. 이 외에 히브리어 동사 נָלַע의 분사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칠십인역은 이 동사에 대하여 모두 다른 그리스어 동사들을 수동 형태로 번역하여 지체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ἐπισκάζω 창 32:31[32]; συντρίβω 미 4:6, 7; ἀπωθέω 습 3:19). 이것을 볼 때 히브리어 동사 נָלַע와 이를 번역한 그리스어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애인 호칭이 아니라 지체 장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עֵוֶר, חֲרָשׁ, אֵלֶם과 בְּסֹחַ와 같은 히브리 용어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호칭이며, אֵלֶם을 제외하고는 칠십인역은 일관성 있게 τυφλός, κωφός와 χωλός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 문제를 위해 신구약성경의 일부분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140-160;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34 (2014), 162-180.

4) 사해 문헌 역시 이런 네 종류의 장애인들(עֵוֶר, חֲרָשׁ, אֵלֶם, בְּסֹחַ)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있다 (IQSa 2:6).

5) 1990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을 크게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장애 등과 같이 분류하는 장애인 복지법을 따르고 있다. 성경에서 정신 장애에 대한 언급은 불분명하거나 소수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 호칭만을 다루려고 한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1997), 56-57.

<표 1>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주요 장애인 호칭들

	עִוְוֵר (‘iwwēr, blind)	שָׂרֵס (hērēs, deaf)	מְלֵם (‘illēm, dumb)	פִּיסְעָה (pissēah, lame)
히브리어 성경	출 4:11; 레 19:14; 21:18; 신 27:18; 28:29; 삼하 5:6, 8(x2); 왕하 25:7; 욥 29:15; 시 146:8; 사 29:18; 35:5; 42:7, 16, 18, 19(x3); 43:8; 56:10; 렘 31:8; 39:76; 52:11; 애 4:147; 습 1:17. (동물에 적용: 신 15:21; 말 1:8)	출 4:11; 레 19:14; 시 38:13[14]; 58:4[5]; 사 29:18; 35:5; 42:18, 19; 43:8.	출 4:11; 사 35:6; 시 38:13[14]; 잠 31:8. (우상에 적용: 합 2:18; 동물에 적용: 사 56:10)	레 21:18; 삼하 5:6; 5:8(x2); 9:13; 19:26[27]; 욥 29:15; 잠 26:7; 사 33:23; 35:6; 렘 31:8. (동물에게 적용: 신 15:21; 말 1: 8, 13)
칠십인역	τυφλός: 출 4:11; 레 19:14; 21:18; 신 27:18; 28:19; 삼하 5:6, 8(x2); 욥 29:15; 시 145:8(BHS 146:8); 사 29:18; 35:5; 42:7, 16, 18, 19(x2); 43:8(x2); 61:1; 습 1:17. (동물에 적용: 신 15:21; 말 1:8) ἐκτυφλώ: 왕하 25:7; 사 56:10; 렘 52:11.	κωφός: 출 4:11; 레 19:14; 시 37:14(BHS 38:14); 57:5(BHS 58:5); 사 29:18; 35:5; 42:18, 19; 43:8; 44:11(히브리 본문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한글번역은 히브리 본문을 따르고 있다).	δύσκωφος: 출 4:11 μογιάλος: 사 35:6 ἄλαλος: 시 37:14 (BHS 38:14) κωφός: 합 2:18 ἐνεός: 사 56:10	χωλός: 레 21:18; 삼하 5:6, 8(x2); 9:13; 19:27; 욥 29:15; 사 33:23; 35:6. (동물에 적용: 신 15:21; 말 1:8, 13)

위의 <표 1>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 호칭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은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과 나아가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의 것들을 각각 비교하면서 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6) 이 절은 칠십인역에 나타나지 않는다.
7) 칠십인역 본문은 BHS의 것과 다르다.

2.1. 시각 장애인(עִוְר)의 번역 문제

BHS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장애인은 한 눈이든 혹은 두 눈이든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עִוְר⁸⁾)로서 출애굽기 4:11; 레위기 19:14; 21:18; 신명기 27:18; 28:29; 사무엘하 5:6, 8(x2); 열왕기하 25:7; 욥기 29:15; 시편 146:8; 이사야 29:18; 35:5; 42:7, 16, 18, 19(x3); 43:8; 56:10; 예레미야 31:8; 39:7; 52:11; 예레미야애가 4:14; 스바냐 1:17에서 발견되고 있다.⁹⁾ עִוְר은 또한 무력 혹은 무지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시각 장애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장애 은유로 사용된 것이다(사 29:18; 35:5; 시 146:8). 이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시각 장애인을 호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어 τυφλός로 거의 대부분 번역되고 있지만¹⁰⁾ 그리스어 동사 ἐκτυφλώω¹¹⁾의 분사형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시각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עִוְר이고,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주로 τυφλός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 장애인 עִוְר에 대하여 칠십인역은 주로 τυφλός로 거의 기계적으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한글 번역 성경들은 עִוְר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עִוְר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주로 ‘맹인’¹²⁾과 ‘보지 못하고’¹³⁾(사 43:8)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은 ‘눈이 먼 사람’¹³⁾과 ‘못 보는 사람’¹⁴⁾으로, 『공동개정』은 ‘소경’¹⁵⁾ 혹은 ‘(앞) 못 보는 사람(장님)’¹⁶⁾, ‘보지 못하는

8) “עִוְר”, HALOT 1, 803.

9) עִוְר은 시각 장애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형용사이고 동사는 ‘wr, 명사는 ‘awweret와 ‘iwwārōn인데 모두 시각 장애를 가리키고 있다: “עִוְר” ‘iwwēr”, TDOT 10, 574-575; EDNT 3, 377-378.

10) 출 4:11; 레 19:14; 21:18; 신 27:18; 28:29; 삼하 5:6, 8(x2); 욥 29:15; 시 145:8(BHS 146:8); 사 29:18; 35:5; 42:7, 16, 18, 19(x2); 43:8(x2); 61:1; 렘 31:8; 39:7; 애 4:14; 습 1:17 (동물에 적용: 신 15:21; 말 1:8).

11) ἐκτυφλώω는 왕하 25:7; 사 56:10; 렘 52:11에서 발견되는데 문자적으로 ‘시력을 잃다’는 뜻을 갖고 있다. 왕하 25:7과 렘 52:11의 경우 호칭이 아닌 시력을 잃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W. Bauer, W. Arndt and F. Gingrich, “τυφλώω”,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831(이후 GELNT).

12) 출 4:11; 레 19:14; 21:18; 신 27:18; 28:29; 삼하 5:6, 8; 욥 29:15; 시 146:8; 사 29:18; 35:5; 42:16, 18, 19(x3); 56:10; 59:10; 렘 31:8; 애 4:14; 습 1:17.

13) 레 19:14; 21:18; 신 27:18; 28:29.

14) 출 4:11; 욥 29:15; 사 29:9.

15) 레위 19:14; 21:18; 신명 27:18; 2사무 5:6, 8; 욥기 29:15; 이사 29:18; 35:5; 42:7, 16, 18, 19(x2); 56:10; 59:10; 예레 31:8; 애가 4:14; 스바 1:17.

16) 출 4:11; 시 146:8; 사 56:10.

이'17)로 번역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거의 ‘눈 먼 이(사람)’18)와 ‘보지 못하는 이’(사 42:7)와 ‘눈 먼 이’(42:19)와 ‘두 눈을 뽑고’(렘 39:7)로 통일시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기존 성경과는 달리 ‘장님’19)과 같은 단어는 거의 빠지고 ‘소경’, ‘못 보는 사람’ 혹은 ‘맹인’으로 대체 번역한 것은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의식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공인 성경들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1998/1999/2001/2005년)에 번역(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중립적인 호칭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각 장애인 עִוֵּר와 그의 번역들

BHS	עִוֵּר	
LXX	τυφλός	ἐκτυφλώ
『개역개정』	맹인	맹인
『새번역』	눈이 먼 사람 못 보는 사람	눈이 멀어서
『공동개정』	소경 (앞) 못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이	앞 못 보는 소경/장님
『성경』	눈 먼 이(사람)	눈이 먼 자

실제로 עִוֵּר가 사용된 구절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시각 장애(עִוֵּר)를 가진 제사장의 제사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레위기 21:18의 히브리 본문과 번역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כִּי כָל־אִישׁ אֲשֶׁר־בוּ מוֹם לֹא יִקְרַב אִישׁ עִוֵּר אוֹ פֶסֶחַ אוֹ קֶרֶם אוֹ שָׂרִיעַ

1) πᾶς ἄνθρωπος ὃς ἂν ᾖ ἐν αὐτῷ μῶμος οὐ προσελεύσεται ἄνθρωπος χωλός ἢ τυφλός...(LXX)

2)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개역개정』)

17) 사 42:20; 43:8.

18) 탈출 4:11; 레위 19:14; 21:18; 신명 27:18; 28:29; 2사무 5:6, 8; 2열왕 25:7; 욥기 29:15; 시편 146:8; 이사 29:18; 35:5; 16, 18, 43:8; 56:10; 예레 31:8; 52:11; 애가 4:14; 스바 1:17.

19) 『공동개정』(구약성경)에서 장님이라는 용어는 모두 3회 등장하는데(출 4:11; 민 16:14; 신 28:29), 히브리어 עִוֵּר를 ‘장님’으로 번역한 경우는 출 4:11; 신 28:29이다.

- 3)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새번역』)
- 4)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공동개정』)
- 5)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성경』)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특히 밑줄 친 호칭들) 이 본문의 עִוְרָא가 나타나는 레위기 21:18-20은 제사 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제사장의 자격 미달자를 언급한 것인데, 여기의 첫 번째 대상이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 עִוְרָא이다. עִוְרָא는 ‘τυφλός, 맹인, 눈이 먼 사람, 소경, 장님’으로 번역되고 있다. τυφλός는 시각 장애인을 호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어로서 거의 예외 없이 עִוְרָא를 번역한 것이다.²⁰⁾ 그런데 한글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맹인, 눈이 먼 사람, 소경, 장님’과 같은 호칭들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미와 뉘앙스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현재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²¹⁾ 오히려 이 용어들은 은유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인간/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해 본다: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곧 시각 장애인…”²²⁾(레 21:18)

한편 עִוְרָא가 신체적인 시각 장애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무기력하고 부도덕한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거짓 예언자(사 56:10; 애 4:4)와 이스라엘(사 42:19; 43:8)을 비난하기 위하여 은유적으로 עִוְרָא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시각 장애인으로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עִוְרָא를 시온으로의 귀환 명단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시력을 회복하신다(사 29:18; 35:5; 42:16; 렘 31:8)고

20) τυφλός는 신약성경에서 무려 50회 정도 언급되고 있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호칭이다(마 9:27, 28; 11:5; 12:22; 15:14(x3) …; 행 13:11).

21) <http://blog.naver.com/touchhope/220427882486>. 지금까지 시각 장애인은 ‘장님’, ‘봉사’, ‘소경’ 등으로 불렸다(여전히 불리고 있다). “원래 이 같은 호칭들은 처음에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낮추어 사용되던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소경’은 종4품, ‘봉사’는 종8품에 해당하는 관직의 이름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이 관직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시각 장애인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관직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각 장애인의 호칭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또 ‘장님’은 조선 시대 시각 장애인 기관인 ‘맹청’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손윗사람을 부를 때 존경의 뜻을 담아 사용하던 말이라 한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빗대어 쓰이면서 이제는 비하 용어로 쓰이고 있다.”

22) 시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불균형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 등이다. 이때 BHS를 비롯하여 한글 번역 성경들은 시각 장애인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반면 칠십인역은 유일하게 시각 장애인보다 지체 장애인을 먼저 나열하고 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특이한 것은 ‘고난 받는 종’의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cf. 예수의 사역).²³⁾ 이렇게 은유적으로 사용된 עִוְוֵר도 역시 ‘시각 장애인’으로 번역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다. 시각 장애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스바냐 1:17과 이사야 35:5에 등장하는 עִוְוֵר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혹은 눈먼 사람,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슥 1:17, 『개역개정』)

“그 때에 **맹인**(혹은 눈먼 사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사 35:5, 『개역개정』)

위의 두 본문은 עִוְוֵר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장애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스바냐의 경우 이스라엘의 무능과 무지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은유적 עִוְוֵר이고, 이사야의 본문 역시 반대의 상황이지만 시각 장애인의 장애 제거를 민족의 회복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⁴⁾ 이럴 경우 번역에 대한 신학적 주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의미상 그렇다 하더라도 원문에 있는 장애인 용어를 달리 번역하기는 어려우므로 문자 그대로 시각 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번역은 가능하면 문자적 번역에 충실해야 그 이후 폭 넓은 주석적-신학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עִוְוֵר를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사용한 것으로서 BHS에서 두 곳(신 15:21; 말 1:8)이 발견된다.²⁵⁾ 칠십인역에서도 마찬가지로 עִוְוֵר를 τυφλός로 번역하고 있는데 신명기 15:21의 한글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혹은 눈을 못 보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신 15:21, 『개역개정』)

23) “עִוְוֵר ('iwwēr)”, TWOT 2, 655.

24) 채은하, “장애(인)와 치유: 온(Ohn) 신학으로서의 장애인 신학 시도”, 『장신논단』 48:4 (2016), 150, 154.

25) עִוְוֵר 외에도 אֶמֶל(합 2:18; 사 56:10), שָׂמֶה(시 58:4)와 עִוְוֵר(신 15:21; 말 1:8, 13)를 역시 사람이 아닌 짐승(혹은 독사) 혹은 우상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한글성경들 모두 עֵוֶר에 대하여 “눈이 멀었거나” 혹은 “눈을 못 보거나”로 번역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동물에게 ‘시각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일 짐승에게 ‘시각 장애’라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본문 자체가 어색하고 희화될 수 있기에 현재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עֵוֶר가 사람에게는 ‘시각 장애인’으로, 짐승에게 적용되었을 경우엔 ‘눈이 멀었다’나 혹은 ‘눈을 못 본다’는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עֵוֶר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시각 장애’라는 중립적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언어 장애인(אָלֵם)과 청각 장애인(שָׁמֵן)의 번역 문제

BHS에서 언어와 청각 장애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각각 אָלֵם과 שָׁמֵן이다. 언어 장애인(인)을 가리키는 אָלֵם은 출애굽기 4:11; 이사야 35:6; 56:10; 하박국 2:18; 시편 38:13[14](LXX 37:14); 잠언 31:8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주로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개(사 56:10)나 우상(합 2:18)에게도 사용하고 있다. אָלֵם은 칠십인역에서 어느 한 용어로 통일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하게(δύσκωφος 출 4:11²⁶⁾; μογιάλος²⁷⁾ 사 35:6; ἐνεός²⁸⁾; 사 56:10; ἄλαλος²⁹⁾ 시 37:14(BHS 38:14); κωφός 합 2:18) 번역되어 있다. 이 단어들 가운데 앞의 두 용어들은 칠십인역에서 모두 한 번씩만 나타나는 희귀 단어들이어서 정확한 사용 범위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모두 언어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 אָלֵם에 대하여 한글 번역 성경들은 주로 ‘말 못하는 사람’과 ‘병어리’로 번역하고 있다(아래의 <표 3> 참조). 과거의 번역 성경들과 달리 ‘병어리’라는 횡수가 줄고 대신 주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애인’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ἄλαλος로 번역한 시편 37:14(BHS 38:14)의 경우 사람에게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개

26) 이 그리스어는 ‘stone-deaf’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LXX에서 단 1회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다.

27) μογιάλος의 의미는 아예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포함하여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막 7:32에 나타나고 있지만 칠십인역에서는 여기서만 한 번 나타나고 있다: “μογιάλος”, GELNT, 525.

28) 이 단어는 ‘말할 수 없는 혹은 입을 닫은’이란 뜻을 갖고 있으나 꼭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칠십인역에서 잠 17:28과 사 56:10에 나타나고 있다: “ἐνεός”, GELNT, 265.

29) 이 단어는 대체로 언어 장애를 가리키고 있다. 칠십인역에서 단 2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시 30:19(BHS 31:19)와 37:14(BHS 38:14). “ἄλαλος”, GELNT, 35.

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어리’로 번역하고 있다. מְאָלָם에 대한 한글 번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언어 장애인 מְאָלָם과 그의 번역들

BHS	מְאָלָם				
LXX	δύσκωφος (출 4:11)	μογιλάλος (사 35:6)	ἄλαλος (시 38:13[14] LXX 37:14)	κωφός (합 2:18)	ἐνεός (사 56:10)
『개역개정』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우상)	병어리(개)
『새번역』	말 못하는 이	말을 못하던 혀	병어리	말도 못하는(우상)	병어리(개)
『공동개정』	병어리	병어리	병어리	말 못하는(우상)	병어리(개)
『성경』	말 못하는 이	말 못하는 이	병어리	병어리(우상)	병어리(개)

한편 청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שָׂרָרָם에 대하여 칠십인역은 출애굽기 4:11; 레위기 19:14; 시편 58:4[5]; 이사야 29:18; 35:5; 42:18, 19; 43:8에서 언제나 예외 없이 κωφός로 번역하고 있다. שָׂרָרָם 역시 신체적인 청각 장애 혹은 은유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³⁰⁾인데,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어 κωφός로 번역하고 있다.³¹⁾ 그러나 히브리어의 경우 מְאָלָם은 언어 장애인으로, שָׂרָרָם는 청각 장애인으로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שָׂרָרָם와 κωφός에 대하여 한글 번역 성경들은 ‘못 듣는 자, 듣지 못하는 이, 귀 먹은 자, 귀머거리’로 번역하고 있다(아래의 <표 4> 참조). שָׂרָרָם에 대하여 칠십인역이 청각과 언어 장애인 모두를 가리키는 κωφός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번역 성경들은 히브리어의 의미처럼 청각 장애인에 국한시키고 있다. שָׂרָרָם에 대한 성경들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0) “שָׂרָרָם ḥrs”, TLOT 2, 477.

31) κωφός는 언어와 청각 장애 모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언어 장애인인지 청각 장애인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어 장애인’을 가리키는 부분은 마 9:32, 33; 12:22; 15:30, 31; 눅 1:22; 11:14이고, 청각 장애인으로 이해된 곳은 마 11:5; 막 7:32, 37; 9:25와 눅 7:22이다.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170; GELNT, 462; EDNT 2, 333.

〈표 4〉 청각 장애인 שָׁחַח과 그의 번역들

BHS	שָׁחַח
LXX	κωφός
『개역개정』	못 듣는 자(사람)(출 4:11; 사 29:18; 35:5; 42:18, 19; 43:8), 귀먹은 자(레 19:14)
『새번역』	듣지 못하는 이(출 4:11; 레 19:14; 사 29:18; 43:8), 귀먹은 자(사람)(사 35:5; 42:18, 19; 43:8)
『공동개정』	귀머거리(출 4:11; 레 19:14; 사 29:18; 35:5; 42:18, 19), 듣지 못하는 이(사 43:8)
『성경』	귀먹은 자(이)(출 4:11; 레 19:14; 사 29:18; 35:5; 42:18, 19; 43:8)

이처럼 언어와 청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אָלֵם과 שָׁחַח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 4:11은 칠십인역에서 각각 δύσκωφος와 κωφός로 번역되어 있다. אָלֵם에 대한 δύσκωφος는 칠십인역에서 여기서만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중중에 해당하는 청각 장애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 שָׁחַח에 대한 κωφός는 청각 장애인 혹은 언어 장애인 둘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이 구절에서 장애인 목록의 반복을 피하려면 κωφός는 언어 장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영어번역에서도 약간의 혼란이 있다. 즉 세 개의 영어 성경(KJV, NRS와 NIV) 가운데 NIV는 히브리어 אָלֵם(δύσκωφος)을 청각 장애인으로 이해하고, 나머지 KJV와 NRS는 언어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who makes him dumb, or deaf (or seeing or blind)?”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등장 순서를 보면 차례로 אָלֵם과 שָׁחַח이다. 이 호칭들과 칠십인역과 한글 번역 성경들의 번역을 다음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대안적 번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וַיֹּאמֶר יְהוָה אֵלָיו מִי שָׁחַח אִם לְאָדָם אוּ מִי־יִשְׁנִים אֵלֵם אוּ חָרָשׁ אוּ פֶקֶח אוּ עֵוֶר
הֲלֹא אֲנִי יְהוָה

1) εἶπεν δὲ κύριος πρὸς Μωϋσῆν τίς ἔδωκεν στόμα ἀνθρώπῳ καὶ τίς ἐποίησεν δύσκωφον καὶ κωφόν βλέποντα καὶ τυφλόν οὐκ ἐγὼ θὸς (LXX)

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개역개정』)

3)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새번역』)

4) 야훼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병어리나 귀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주거나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야훼가 아니더냐?”(『공동개정』)

5)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머거리 하며, 보게도 하고 눈 멀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성경』)

이런 장애인 호칭들의 비교를 통해 출애굽기 4:11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에게 입을 지어주셨는가? 누가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혹은 보는 자나 시각 장애인’ 이 되게 하는가? 나 여호와가 아닌가!” 이런 번역들은 가장 중립적이고 표준적인 장애인 호칭을 담은 본문이 될 것이다.

덧붙여 짐승과 우상에게도 적용된 אֵל(엘)의 번역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야 56:10에서 אֵל(엘)을 εἰεός로 번역하고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들은 모두 ‘병어리’ 혹은 ‘병어리 개’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אֵל(엘)은 무시와 탐욕과 나태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개로 비유하고 한층 더하여 ‘짓지도 못하는 개’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짓지 못하는 개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장애를 더하여 ‘보지도 못하는 עִוֵּר(에이브)’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짓지도 못하는 개들’이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사 56:10). 이렇게 할 때 시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고 잘못된 지도자들의 나태와 탐욕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אֵל(엘)이 동물에게만 아니라 유일하게 우상에게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칠십인역은 그 אֵל(엘)을 κωφός로 번역하고 있다(합 2:18). 이것에 대해 한글 번역 성경들은 주로 “말도 못하는 우상”(“병어리 우상” - 『성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글성경들이 번역한 것처럼 “병어리 우상”보다는 “말도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병어리 우상’이라고 하게 되면 언어 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인이 우상의 부정적 특징에 개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잠언 31:8상반의 BHS 본문은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אֵל)을

위해 대신 말해 줄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칠십인역은 'מִלֵּא'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략한 채 다음과 같이 달리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입을 열어라.”³²⁾ 한글 번역 성경들은 모두 히브리 본문처럼 מִלֵּא를 포함시켜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מִלֵּא이 나타나는 이 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너는 언어 장애인을 위해 입을 열라...”

이상과 같이 언어와 청각 장애인에 대한 מִלֵּא과 שִׁחָ와 이것들을 번역한 그리스어 용어들은 대체로 일관성 있게 장애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글 번역 성경은 여전히 속어적인 표현들이나 장애의 단편적 현상을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위의 <표 3>, <표 4> 참조). 이런 부분은 차기 성경 번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중립적인 호칭으로 번역해야 할 것들이다.

2.3. 지체 장애인(ΠΕΠ)의 번역 문제

BHS에서 지체 장애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ΠΕΠ이다. 이 단어는 레위기 21:18; 사무엘하 5:6, 8(x2); 9:13; 19:26[27]; 욥기 29:15; 잠언 26:7; 이사야 33:23; 35:6; 신명기 15:21; 말라기 1:8, 13³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칠십인역은 모두 예외 없이 χαλός로 번역하고 있다. ΠΕΠ의 사전적 의미는 대부분의 사전들이 ‘다리가 불편한’ 혹은 ‘다리를 저는’ 정도의 의미만 전달할 뿐 특별한 설명을 더하고 있지 않다.³⁴⁾ ΠΕΠ에 대하여 장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이 있다. 그 예는 므비보셋의 경우로써 사무엘하 4:4를 보면 므비보셋이 장애를 갖게 된 연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계(ΠΕΠ) 되었더라”(『개역개정』). 므비보셋의 상태가 히브리어 ΠΕΠ의 니팔형으로 설명되고 있다(삼하 5:6, 8). 또한 그는 두 발이 모두 장애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삼하 9:13). 나중에 므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옆드려 절을 한 적이 있는데(삼하 9:6), 그렇다면 이 단어는 다리나 발에 장애가 있어서 걷는 일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걷지 못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ΠΕΠ를 언제나 χαλός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어의 뜻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신체 특히 다리(혹은 발)나 손이 기형이거나 기능적으로 마비되거나 손실되어서 불편한 경우, 때로는 단순한 상처를 입

32) ἄνοιγε σὸν στόμα λόγῳ θεοῦ (잠 31:8상).

33) 신 15:21과 말 1:8, 13에서 이 단어는 모두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게 적용되고 있다.

34) “ΠΕΠ/ΠΕΠ”, BDB, 820.

은 사람도 가리킨다.³⁵⁾ 이처럼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발이나 다리에 마비나 결손이 있는 지체 장애인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pi\tau\epsilon\beta$ 와 다르지 않다.³⁶⁾ 그런데 신약성경(『개역개정』)에서 이 단어는 ‘못 걷는 사람’(마 11:5; 15:30; 눅 7:22; 행 3:2; 8:7; 14:8)과 ‘저는 사람’(마 15:30; 21:14; 막 9:45; 눅 14:13, 21; 요 5:3)으로 번역되고 있다. 더욱이 마가복음 9:45에서 사용된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절단 장애인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pi\tau\epsilon\beta/\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리나 발(혹은 팔)의 절단이나 마비이든 혹은 경미하게 저는 정도의 장애가 있든 일반적으로 다리나 발 혹은 팔의 장애가 있는 모든 지체 장애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³⁷⁾

반면 한글 공인 성경들은 $\pi\tau\epsilon\beta/\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에 대하여 조금씩 달리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주로 ‘다리 저는 자’(레 21:18; 삼하 5:6, 8; 9:13; 19:26; 욥 29:15; 사 33:23; 35:6)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 역시 ‘다리 저는 자’(레 21:18; 삼하 5:6; 9:13; 19:26; 욥 29:15; 사 33:23; 35:6)로, 『공동개정』은 ‘절름발이’(레 21:18; 삼하 5:6, 8; 19:27³⁸⁾; 사 35:6), ‘저는 자’(삼하 9:13), ‘절뚝발이’(욥 29:15; 사 33:23)로 번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pi\tau\epsilon\beta/\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모두 ‘다리 저는 사람’(레 21:18; 삼하 5:6, 8; 9:13; 19:27; 욥 29:15; 사 33:23; 35:6)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듯 한글성경의 번역들은 $\pi\tau\epsilon\beta$ 를 칠십인역에서 모두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로, 한글성경에서는 『공동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리 저는 자(사람)’로 일치시키고 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한글성경들은 $\pi\tau\epsilon\beta/\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모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i\tau\epsilon\beta$ 외에도 BHS는 지체 장애에 대하여 또 다른 히브리어 $\pi\tau\epsilon\beta$ ³⁹⁾를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창 32:31[32]; 미 4:6, 7; 습 3:19). 이 단어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은 다양한 동사들($\acute{\epsilon}\pi\iota\sigma\acute{\kappa}\acute{\alpha}\zeta\omega$ 창 32:32; $\sigma\upsilon\nu\tau\acute{\rho}\iota\beta\omega$ 미 4:6; $\acute{\alpha}\pi\omega\theta\acute{\epsilon}\omega$ 습 3:19)⁴⁰⁾의 수동 형태로 상처를 입거나 불편한 다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

35) GELNT, 457, 889.

36) H. Balz and G. Schneider, EDNT 3, 490-491.

37) 지체 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 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

38) 『개역개정』의 삼하 19:26이 『공동개정』과 『성경』에는 19:27로 표기되어 있다.

39) “ $\pi\tau\epsilon\beta$ ”, HALOT 2, 1030.

40) $\acute{\epsilon}\pi\iota\sigma\acute{\kappa}\acute{\alpha}\zeta\omega$ 는 ‘다리를 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칠십인역에만 나타나고 있다; $\sigma\upsilon\nu\tau\acute{\rho}\iota\beta\omega$ 는 ‘깨지다’, ‘부서지다’, ‘멍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마 12:20; 막 5:4; 14:3; 눅 9:39; 요 19:36; 롬 16:20; 계 2:27). $\acute{\alpha}\pi\omega\theta\acute{\epsilon}\omega$ 는 ‘거부, 소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acute{\epsilon}\pi\iota\sigma\acute{\kappa}\acute{\alpha}\zeta\omega$ 는 불편한 다리나 몸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sigma\upsilon\nu\tau\acute{\rho}\iota\beta\omega$ 와 $\acute{\alpha}\pi\omega\theta\acute{\epsilon}\omega$ 는 주로 은유적으로 쫓겨나거나 거부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GELNT, 103, 793.

다. 따라서 이 단어(טֵלֵם)는 지체 장애인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라기보다는 불편한 다리를 묘사하는 지체 장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πῶβ/χωλός가 한글성경들에서 주로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 절뚝발이”처럼 번역한 것은 지체 장애인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πῶβ/χωλός는 지체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체 장애인’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⁴¹⁾ 특히 2001년에 개정된 『공동개정』은 한 곳을 제외하고는(삼하 9:13) πῶβ/χωλός를 모두 “절름발이” 혹은 “절뚝발이”로 번역하고 있다. πῶβ/χωλός에 대한 한글성경들의 번역과 이들의 사용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체 장애인 πῶβ와 그의 번역들

BHS	πῶβ			
LXX	χωλός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
다리 저는 자 (사람)	레 21:18; 삼하 5:6, 8; 9:13; 19:26[27]; 욥 29:15; 사 33:23; 35:6	레 21:18; 삼하 5:6; 9:13; 19:26[27]; 욥 29:15; 사 33:23; 35:6	삼하 9:13	레 21:18; 삼하 5:6, 8; 9:13; 19:27; 잠 언 26:7; 욥 29:15; 사 33:23; 35:6
절름발이			레 21:18; 삼하 5:6, 8; 19:27; 잠 26:7; 사 35:6	
절뚝발이			욥 29:15; 사 33:23	

πῶβ가 나타나는 여러 본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5:8하반의 본문을 통해 πῶβ의 번역들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번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עַל־כֵּן יֵאָמְרוּ עַד וּפְסָח לֹא יָבֹא אֶל־הַבַּיִת

41) 신약성경(마 11:5; 15:30, 31; 막 9:45; 눅 7:22; 14:13, 21; 요 5:3; 행 3:2; 8:7; 14:8; 히 12:13)에 자주 등장하는 χωλός는 다리나 발 혹은 팔의 절단 내지는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있다.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167.

- 1) τυφλοί καὶ χωλοὶ οὐκ εἰσελεύσονται εἰς οἶκον κυρίου (LXX)
- 2)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개역개정』)
- 3) 그래서 ‘눈 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새번역』)
- 4) 이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공동개정』)
- 5) 여기에서 “다리 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성경』)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이끄는 군대가 여부스 족속을 침략하려 하자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도 다윗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 위해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입성을 엄격하게 금하는 법을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²⁾ 이 선포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을 할 수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한글 번역 성경들은 תפס/χωλός를 ‘다리 저는 사람’ 혹은 ‘절름발이’로 거의 통일시켜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 혹은 ‘절뚝발이’와 같은 번역은 속어에 속한 차별적인 용어로서 요즘 일상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성경의 언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사무엘하 5:8하반은 시각 장애인 עִוְרִי/τυφλός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은 그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תפס와 더불어 본 연구가 선택한 모든 종류의 장애인(עִוְרִי, עִוְרִי, אֵלֶם)이 나타나는 이사야 35:5-6상반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구절의 장애인 호칭들을 다른 번역들과 비교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안적 번역을 최종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히브리어 원문과 그의 번역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אִז תִּפְקַחְנָה עֵינֵי עִוְרִים וְאָזְנֵי חֲרָשִׁים תִּפְתַּחְנָה
אִז יִדְלַג כְּאַיִל פֶּסַח וְתָרֵן לְשׁוֹן אֵלֶם

1) τότε ἀνοιχθήσονται ὀφθαλμοὶ τυφλῶν καὶ ὄτα κωφῶν ἀκούσονται τότε ἀλείπεται ὡς ἔλαφος ὁ χωλός καὶ τρανὴ ἔσται γλῶσσα μογιλάλων ὅτι ἔρραγή

42) 채은하,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신학의 한 시도”, 『구약논단』 14 (2008), 41-42.

ἐν τῇ ἐρήμῳ ὕδωρ καὶ φάραγξ ἐν γῆ διψώσῃ (LXX)

2)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개역개정』)

3) 그 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 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새번역』)

4) 그 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병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공동개정』)

5) 그 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 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성경』)

이 구절에 히브리어 עֵרָר, שָׁרַשׁ, קַפְסָה와 מַלְאָּ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처음 세 용어들에 대하여 칠십인역은 예외 없이 τυφλός, κωφός, χωλός로 번역하고, מַלְאָּ는 μογιλάλος로 언어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제안한 것을 기초로 이 구절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자 한다: “그때에 **시각 장애인**의 눈이 열릴 것이며 **청각 장애인**의 귀가 들릴 것이다. 그 때에 **지체 장애인**은 사슴처럼 뿔 것이며 **언어 장애인**의 혀는 기뻐서 소리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각, 청각, 지체 그리고 언어 장애인이라고 호칭한 것은 이런 용어들이 현재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표준적인 분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을 호칭할 때 가능한 한 속어적이고 특정 장애의 형태나 모습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이를테면, 지체 장애인에 대하여 절름발이, 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귀가 먹은 사람으로 묘사) 이런 표현이 종종 장애인의 장애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3. 결론 및 나가는 말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위에서 조사한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4개의 히브리어 용어들(BHS)과 이를 번역한 칠십인역(LXX)의 그리스어들과 그것에 대한 4개의 한글 공인 성경들의 호칭들을 비교함으로써 대안적 번역들⁴³⁾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한다.

43) 정부는 1980년 이후부터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장애 등을 장애인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6-57.

<표 6> 장애인 호칭들의 비교와 대안적 번역

BHS	칠십인역	『개역개정』 (1998)	『새번역』 (2001)	『공동개정』 (1999)	『성경』 (2005)	대안적 번역
קִרְבָּן	τυφλός	맹인, 눈이 먼 사 람	눈이 먼 사 람, 못 보는 사람	소경, 눈먼 이(사 람), 못 보는 사람	눈먼 (이) 사람	시각 장애인
מְבֹרָא	δύσκωφος μογιλάλος ἄλαλος ἐνεός κωφός	말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혀)	병어리, 말 못하는 이	병어리, 말 못하는 이(자)	언어 장애인
שָׂמֵן	κωφός	못 듣는 자 귀먹은 자	듣지 못하는 자 귀먹은 자	귀머거리	귀머거리 듣지 못하 는 자	청각 장애인
פְּסוּל	χωλός	다리 저는 자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 절름발이	다리 저는 자	지체 장애인

지금까지 보았듯이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은 장애인 호칭들을 비교적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 원어만으로 장애의 정확한 상태나 종류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특정 장애의 모습이나 형태를 묘사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고 중립적인 용어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글 번역 성경들은 최근에 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어들 혹은 부적절한 표현들이거나 비하적인 언어로 장애인들을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호칭의 문제는 우리 말 특성상 존대와 하대 그리고 비하의 어투가 뚜렷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1990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호칭들이 통일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용어들은 주로 사회복지나 장애인 관련 부분에서 통용되고 있을 뿐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익숙한 호칭들이 아니었기에 쉽게 사용되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호칭 문제는 인간의 역사만큼 길고, 각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시선과 제도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호칭이나 용어 때문에도 적지 않게 상처를 받는다. 과거에 사용하던 많은 장애인 호

칭들이 현재 속어이거나 장애의 유무 없이 남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때 여전히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은유적 사용은 역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곤 한다. 때문에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중립적이고 비차별적인 호칭들의 사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얼마 전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장애인을 장애가 아닌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능력이 다른 사람’(differently abled people, DAP)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장애의 현실이 간과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대신 PWD(people with disability)를 공식 용어로 채택,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리적 장애 내지 한계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어떤 능력이나 해석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장애우(障礙友)’라는 용어가 한때 장애인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장애인에 대하여 유독 우호적인 태도나 호칭 역시 일종의 차별 내지는 동정의 시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신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사고나 태도와 행동의 기초를 성경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함의를 자연스럽게 담게 된다. 때문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장애인 호칭에 대한 속어의 사용이나 편견과 무시가 담긴 호칭 사용은 자제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한글 번역 성경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 호칭들에 대하여 그에 준한 공식적인 분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 그리고 정신 장애인을 장애인의 공식적인 범주 내지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 호칭들은 현재로선 장애인 호칭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다시 말하면 가장 중립적 이미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이런 표준적인 장애인 호칭이 미래에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달리 바뀔 수 있다.⁴⁴⁾ 언어와 정신은 시대적 흐름에 바뀌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장애인

44) 근대 이전의 한국에서는 지금은 공식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병신’(病身)이란 용어를 장애인 호칭으로 사용했다. 병신이란 본래 한자어 病身에서 온 말로서 그 원의는 병든 몸 혹은 아픈 몸이라는 뜻이다. 병신이란 말의 원의는 중립적 가치를 지녔다. 그러다가 병신이라는 단어는 몸을 중심으로 정상/비정상, 주체/타자, 우/열, 강/약, 유시(有視)/무시, 동화/이화(異化)를 뚜렷이 구분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 마디로 말해 병신이란 말에는 차별과 배제와 억압의 시선을 담고 있다.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2003), 311-312.

호칭의 최근 변화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עִוְר, חֵרֶשׁ, אֵלֵם과 פֶּסֶחַ에 대하여 칠십인역의 번역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성경』)의 용어들을 검토해서 중립적인 용어들 즉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을 대안적인 장애인 호칭으로 번역할 것을 주장하고 제안한다.

<주제어>(Keywords)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 시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BHS, LXX, blind, dumb, deaf, lame.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3월 20일)

<참고문헌> (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1999)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98)
 『성경전서 새번역』 (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성경』 (2005)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남연희, 설지화, 이기량, 『장애인복지론』, 고양시: 공동체, 2009.
 박희병, “병신에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24 (2003), 309-361.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1997.
 채은하,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신학의 한 시도”, 『구약논단』 14:1 (2008), 28-50.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140-160.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180.
 채은하, “장애(인)와 치유: 온(Ohn) 신학으로서의 장애인 신학 시도”, 『장신논단』 48:4 (2016), 143-168.
 Bauer, W., Arndt, W., and Gingrich, F.,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GELNT)*,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harles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DB)*, Lafayette: Associated Publishers and Authors, Inc., 1981.
 “חֲרָשׁ” *ḥrš*”,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LOT)*, Vol. 2,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7, 477-482.
 “עִוְרָא”, L. Koehler, W. Baumgartner and J. J.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Vol. 1,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Leiden; New York: E. J. Brill, 1994, 803.
 “עִוְרָא” (*‘iwwēr*)”, R. L. Harris,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ed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TWOT)*, Vol. 2, Chicago: Moody, 1980.
 “עִוְרָא” *‘iwwēr*”, G. J. Botterweck, H. Ringgren and H.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DOT)*, Vol. 10, Grand Rapid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574-577.
 “τυφλός”, H. Balz and G.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NT)*, Vol. 3,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0, 377-378.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erms Referring to
People with Disabilities (PWD) and Their Alternatives:
Centering on Hebrew Bible, LXX, and Recently Revised and
Newly Translated Korean Bible Versions**

Unha Chai

(Hanil Univ.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 lo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WD) appear in the Hebrew Bible (BHS⁴⁵). It is because disabilities can neither be avoided nor overlooked in human history. Therefore, their terms could be a public barometer to judge their society's mass bias or unconsciousness concerning PWD. In this respect, it is of significance to find out which terms are used for PWD in BHS and how they are translated in LXX and recently revised and newly translated Korean Bible versions. The Korean Bible versions chosen for this essay ar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The 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999)" and "Seong-kyung (2005)" published by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The terms representatively referring to PWD are עֵוֶר, חֵרֶשׁ, אֵלֵם and פֶּסֶחַ in BHS. In LXX⁴⁶ they are usually translated as τυφλός for עֵוֶר, κωφός for חֵרֶשׁ and χωλός for פֶּסֶחַ. However, אֵלֵם is translated into various words like δούσκωφος, μογιλάλος, ἄλαλος, κωφός or ἐνεός rather than a specific word. As shown, each Hebrew term is quite regularly translated into Greek words like τυφλός, κωφός and χωλός in LXX except אֵלֵם. The Hebrew terms are usually translated as "the blind, the dumb, the deaf, and the lame" in English versions like the KJV, NRS and NIV.

This essay seeks to compare the four Hebrew terms for the PWD in BHS and their translations into Greek words in LXX and various Korean Bible versions mentioned above, and to find out their alternatives. It is noticeable that their titles in Korean versions are translated into more neutral and sound designations than in older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However, this essay points out that

45)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7; 1997).

46) A. Rahlfs, 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there's more to be done, and alternatively proposes to align these terms in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terms used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990), and to adopt the terms 시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청각 장애인 and 지체 장애인 for the four Hebrew terms studied in this paper. The language of the Bible is very powerful and influential to Bible readers because it is God's Word. Therefore the terms or titles for the PWD are to be revised to words with sound, neutral meaning and nuance according to the spirit and fashion of our times. It is carefully proposed that the translations are to be neutral and non-prejudiced at any case.